

道,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초격차 구축 박차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 근간
최근 LCD→OLED 패널로 재편

디스플레이 공정플랫폼 구축
삼성디스플레이 13조 투자 등
OLED 중심 생태계 대변화

도,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맞춤형 지원키로
관련 사업 융합 시너지 극대화

충남도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초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10월 27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에서 산업부, 협력기관 등과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가 최대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육성하는 5대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에 충남 서북부 6개 산업단지가 디스플레이 부문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큐디-오엘이디(QD-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벨류 체인 완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천안제2일반산단, 천안제4일반산단, 천안제3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제1아산테크노밸리, 제2아산테크노밸리 등 5개 산업단지에 현재 완공단계인 아산스마트밸리가 포함됐다.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은 아산스마트밸리의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디스플레이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 기반 구축, 핵심부품 자립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충남도는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을 도내 디스플레이 사업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도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사업비 5281억 원을 투입해 OLED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디스플레이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대형 OLED(QD-OLED) 디스플레이 전환을 위해 2025년까지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 LCD 생산라인을 OLED라인

으로 전환, 소부장 국산화율을 높이고 공급망을 확보한다.

도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용지 확보와 개발, 기반시설 구축 및 인허가를 맡고, 산업부는 특화단지별 공급망을 분석해 취약한 가치사슬을 보완하는 품목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의 디스플레이 생산 규모는 전 세계의 20%, 국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 생산액 규모는 2020년 기준 245억 달러로 2019년 229억원 보다 16억 달러 증가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산업육성과 041-635-3930

충남 디스플레이 글로벌 거점

- 충남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현황) 천안 제2산단, 천안 제3외국인산단, 천안 제4산단, 아산 제1테크노, 아산 제2테크노, 아산스마트밸리
(지원계획) 수요-공급기업 공동 R&D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재직자 교육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
(사업비) 5281억 원
(사업내용) OLED 소부장 핵심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등
-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충남 아산)**
(사업비) 13조 1000억 원
(사업내용) LCD라인 OLED라인 전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등

충남 도내 디스플레이 생산규모

(국내외 비중) 전세계 20%, 국내 54% 차지
(생산액 규모) 2020년 245억 달러

기후위기, 충남을 보면 지구가 안심합니다

뉴스 맥락 읽기

지구 온도가 1도씩 오르면?

1℃~2℃ 상승하면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사라집니다. 대형산불과 코로나 같은 전염병, 가뭄, 환경난민이 발생합니다. 현재진행형입니다.

2℃ 오르면 그린란드가 녹아내리고 바다생물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3℃ 상승하면 아마존 우림이 사라지고 20~50%의 생물이 멸종합니다.

기후위기도 '뉴 노멀' 시대

세계기상기구(WMO)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2002~2021)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09℃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0년 안에 지구 평균온도가 1.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1.5℃ 상승에 이르면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

이상기후가 일상화됩니다. 이른바 '기후위기 뉴 노멀' 시대입니다.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충남이 쏘아올린 탄소중립 선언

그 출발이 바로 '탈석탄'과 '탄소중립'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활시위는 충남도였습니다. 충남도는 정부 선언보다 앞선 2019년 전국 최초로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해 왔습니다.

작년 말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를 이끌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선도했습니다. 전국적인 참여와 반향을 이끈 탈석탄 금고선언에 70여개의 지자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탈석탄 금고 표준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탈석탄 금고는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의 금고 운영 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충남이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충남형 그린뉴딜 31조 투자

충남은 탈석탄을 넘어 그린뉴딜(신재생 에너지)로 혁신합니다.

보령에는 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를 구축해 연간 25만 톤의 블루수소를 생산합니다. 블루수소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충남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갑니다. 2025년까지 충남형 그린뉴딜에 31조 원을 투입해 2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이 충남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의 22.2%에 이릅니다. 그런 충남이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의 깃발을 치켜올렸습니다. 탈석탄과 탄소중립만이 지구의 위기를 막을 유일한 출구전략인 까닭입니다. 충남을 보면 지구가 안심합니다.

이찬선 도정신문팀장
chansun21@korea.kr

내포문화숲길 지자체 첫 '국가숲길'

가치·규모·품질 등 높은 평가

4개 시군 320km 방대한 숲길

생태자원, 백제문화자원 품어

충남 '내포문화숲길'이 지자체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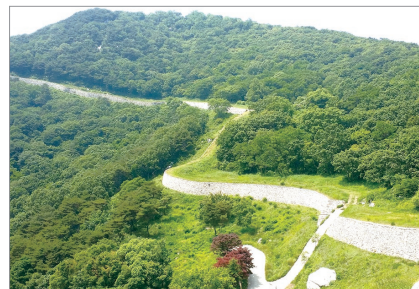
도는 내포문화숲길이 산림청 산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국가숲길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숲길은 지리산 둘레길, 백두대간 트레일, 비무장지대(DMZ) 펀치볼 둘레길, 대관령 숲길 등 4곳에 이번 내포문화숲길과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이 추가돼 총 6곳으로 늘었다.

자치단체가 조성·운영 중인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내포문화숲길이 처음이다.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 덕숭산, 수암산, 오서산 등 도내 명산을 포함하고 있어 산림 생태적 가치가 높은 데다,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 수덕사, 개심사 등 역사·문화 유적도 풍부하다.

규모는 서산·당진·홍성·예산 4개



백제부흥군길3코스 임존성

시군, 26개 읍면동, 121개 마을 320km에 달한다.

주제별로는 ▲내포 역사 인물 동학길 ▲백제부흥군길 ▲원효 깨달음길 ▲내포 천주교 순례길 등 4개로 구분한다.

나당연합군과 전투를 치른 역사적 지점들을 연결한 백제부흥군길은 110.3km에 달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내포문화숲길에 대한 인지도 상승, 도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국가숲길 지정 선포식 등 기념행사를 마련하고, 걷기 행사 등을 추진한다.

/산림자원과 041-635-2575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최적지”

도, 육사 유치 필요성 논의
당위성 부각하고 의지 밝혀

충남도가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범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육사 충남 논산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논산은 육사 이전의 3가지 조건인 국가균형발전, 국방교육 연계성, 이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지로 꼽힌다.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및 국방산업단지가 있고, 인접한 계룡시에 위치한 3군본부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방 관련 산학연 30여 개가 인접해 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육사 논산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은 “육사 논산 이전 유치는 세종시 건설로 인한 충남의 상대적 역차별을 시정하



지난 1일 열린 육사 논산 유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육사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기 위해 혁신도시 시전2 이전에 시전 1.5의 관점에서 선제적 고려를 요구하고 수용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내년 대선 공약의 제화 방안, 충남 차원의 조직운동 체계 가동,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의제화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등 충청권 공동 협력과제로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호 건양대 교수는 “국방 관련 연구기관 신설 및 이전과 군 교육훈련 기관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육사 이전에 대비한 부지

및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되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영구 국방대 교수도 “단순히 육사 이전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국방·군사 교육기관의 동시 이전 및 관련 기업 등을 묶어 이전함으로써 대규모 종합 교육 및 연구도시로의 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충남육사유치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도와 논산시가 공동 주관했다.

/균형발전과 041-635-2355

“환황해 네트워크로 3대 위기 풀자”

도, ‘환황해 포럼’서 협력 제기

충남도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기반 환황해권 소통·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10월 26일 ‘제7회 환황해 포럼’을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 외교부·통일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개최선언, 기조강연, 평화선언문 낭독, 특별세션과 본 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도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위기 해법으로 ▲온라인 위기극복포럼 조성(플랫폼) ▲온라인 청년·시니어클럽 활동(시민참여) ▲온라인 데이터 공유(협력) 등을 내놔다.

특별세션에서는 ‘2021년 한반도 정세 전망 및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본 세션에서는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 방안 등 지방정부 차원의 다자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균형발전과 041-635-2357

농업인·소상공인 상생 발전

활성화 사업, 금융지원 등

충남도는 10월 25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농업인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한 농협-소상공인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농업인·소상공인 상

생 발전 사업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사업 등을 발굴·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 농협충남세종지역본부,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가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4

도정만평

설인호



석탄화력 폐지… 꼭 필요한 사업은?

일자리 전환 등 의견 수렴

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2022년 정의로운 전환기금 사업’ 제안을 받는다.

석탄화력발전이 소재한 보령시·당진시·서천군·대안군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도민 누구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내용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금 등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 관련 사업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 기업 유치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 발전 설비 및 부지 해체·복원 활용을 위

한 주민 프로그램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탈탄소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이다.

/에너지과 041-635-3457

보령머드박람회 입장권 20% 할인

일반 9000원, 청소년 7000원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문경주)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온·오프라인 입장권 판매를 진행한다.

온라인 예매는 ㈜인터파크, 오프라

인 판매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에서 각각 맡아하며, 현장 입장권 가격은 일반 12,000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 6,000원이다.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로 11월 14일까지 약 4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각각 일반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

린이 4,000원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후 사전예매 특가로 2022년 7월 15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으로 일반 9,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2022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간 열린다.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041-930-2824

백제시대를 볼 수 있는 거울

무령왕릉 주요유물 살펴보기

- 청동거울

무령왕릉서 3점 출토 국보 지정

유사 형태 거울 8고문서 출토

당시 백제문화 전파 입증 자료

청동거울은 원래 제사장의 소유물이었으나, 역사시대에 접어들어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정치의 최정점에 서 있는 왕의 소유물로 바뀌었다. 무령왕릉에서는 모두 3점의 청동거울이 출토되었는데, 왕의 관에서 2점, 왕비의 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3점의 거울은 현재 국보로 일괄 지정되어 있지만 3점의 출토위치, 크기와 형식 등을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왕의 발치에서 발견된 청동거울(靑銅製方格規矩神獸文鏡)은 지름이 17.8cm로, 거울결이[紐]를 중심으로 4각으로 구획하고 그 주위에 신선(神仙)과 신수(神獸)를 표현하였다. 중국의 방격규구경을 원본으로 하여 제작한 방제경(倣製鏡)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거울이 실물로 확인된 예가 없고 독특한 도상이 있다는 점에서 백제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왕의 머리에서 출토된 청동거울(靑銅製宜子孫獸帶鏡)은 지름 23.2cm로, 무령왕릉에서 8호로 출토된 것들 중 가장 크기가 크다. 가운데 거울결이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돌기가 둘러지고 그 사이로 동물과 ‘의자손(宜子孫)’ 글자가 새겨져 있어 의자손수대경이라고 부른다. 한편 이 거울과 유사한 형태의 거울이 일본 군마현[群馬縣] 간논야마[觀音山] 고분에서도 출토되었는데, 백제계 문물과 함께 출토되어 당시 일본에 백제문화의 영향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왕비의 머리에서 출토된 청동거울(靑銅製獸帶鏡)은 지름 18.1cm로, 3개의 큰 원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모습은 왕의 의자손수대경과 비슷하지만 돌기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가운데 거울결이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돌기가 둘러지고 그 바깥으로 원이 구획되고 그 둘레로 조금 큰 돌기가 등간격으로 7개가 배치되어 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청동거울을 통해 당시의 사상을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작과정에 대한 공예기술을 알려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국립공주박물관



청동거울(왕)



청동거울(왕비)



충남서산공항 이륙 날개 펼쳤다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가시권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대상사업 최종 선정

사산 군비행장 활주로 활용
사업비 509억 경제성 인정
내년 관련 국비 15억 반영



충남도의 숙원사업인 ‘충남 서산공항 건설’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는 11월 3일 공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충남 서산공항이 3분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산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산공항은 1996년 고 김영삼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되며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IMF 사태 이후 정부의 신규 지역공항 개발 배제 방침에 따라 공항 건설이 좌절되기도 했으나, 도는 ▲국토 균형발전 ▲적은 투자 비용 ▲항공서비스 소

외 해소 등을 내세우며 공항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공항이 검토·반영되며, 같은 해 12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됐다.

이 용역에서는 해미 공군비행장 주변에 터미널과 유도로, 진입도로 1.4km 짓는데 사업비 509억 원이 소요되며, 경제성(B/C)은 1.32로 나타났다.

장래 항공 수요는 2025년 기준 37만 명으로 추산되고, 2053년에는 53만 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도내 서북부 지역민의 국제 관광 수요 증가와 인근 국가기간산업 발전으로 인한 경제 교류 활성화,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 잠재적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되고, 9월에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서산공항이 ‘일반공항개발’로 포함돼 다시 한 번 추진 동력을 갖추게 됐다.

이번 예타 대상 선정에 따라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예타를 통과하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 착공 ▲2026년 개항 등의 절차를 밟아 충남의 하늘길을 열게 된다.

양 지사는 “도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한편,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2835

당진도 상생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제외된 도민

1인당 12만 5000원씩 지원

11월 1일~12월 3일까지 신청

충남도가 국민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도민 상생지원금’을 지원기로 확정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국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6만여 명에게 11월부터 1인당 12만 5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진시도 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15개 시군에 거주하

는 모든 도민이 상생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전체 도민의 12.4%인 26만 2233명이다.

지원금 지급 절차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시군비는 각 시군이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도내 체류하는 사람 등이며, 기존에 상생 국민지원금 등 동일한 목적의 국가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나 타시도 전출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3일간 가능하다.

/안전정책과 041-635-5622

충남 숙박 예약 할인쿠폰 쏩니다

9~30일 투숙 예약 시 사용

충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도내 숙박시설 예약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숙박대전(지역편)’을 한다.

개시 시점은 11월 1일 10시부터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OTA) 9곳에서 도내 숙박 예약 시 개인당 1회 할인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을 사용해 투숙 가능한

날짜는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최소 7만 원 초과 숙박 상품 결제 시 5만 원 숙박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을 발급받은 뒤에는 유효시간(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 내 숙박시설 예약에 사용해야 한다.

시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 취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엔 자동 무효 처리된다.

/관광진흥과 041-635-3885

당진에 청년창업공간 ‘면천창고’ 개소

농산물 등 창업가 5팀 참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충남센터)와 당진시가 최근 청년창업공간인 ‘면천창고’ (구 면천농협창고) 개관식을 가졌다.

충남센터는 청년창업공간을 운영할

청년창업가를 선발하고 내부 보강공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청년창업가 3인이 운영하는 면천창고 카페가 임시 운영에 들어갔다.

충남센터는 청년창업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면천창고

내 공유오피스 및 공동 작업공간을 조성했다.

아울러 화훼교육, 지역농산물 가공 판매업 등 창업가 5개 팀을 추가 참여 하도록 했다.

강희준 센터장은 “‘면천창고’가 면천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청년창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87

설렘에 발그스레한 당신 얼굴

장항선 연가 - 예산역

예산역 장마당에서 그대 만났네.
발그레한 불우물도 여전한 흥옥

어떻게 지냈느냐고 묻지 말아요.

서릿바람 불어올수록 더 진하게
마음 가는 대로 물어오는 향기를.
(그대, 흥옥-예산역)

지금은 크고 향기로운 사과들이 많지만, 유년의 사과는 작고 수줍음 많아 불이 발그레한 흥옥이었다. 꺾을 것도 없이 바지에 쓱쓱 문지르고 먹어도 탈이 없던 사과였다.

베물면 새콤한 맛이 나는 흥옥은 요즈음은 드문 사과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드득 터지는 껍질의 식감과 상큼한 맛에 추억의 장마당을 단골로 찾는 사람도 있다.

예산은 사과 산지로 일찍부터 알려진 곳이다. 좋은 토양과 기후로 ‘예산황토사과’라는 브랜드를 붙인 예산 사과는 맛있는 사과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3일과 8일로 끝나는 날에 예산역 전장이 열려, 인근에서 농사지은 신선한 농산물을 볼 수 있다. 예산 갈일이 있으면 일부러 장에 들려 충청도 특유의 느낌과 기다림의 감성에 젖어본다.

유전자를 손보아 달콤하고 잘생긴 사과로 변화시키듯, 사람들 가슴을 물들이던 흥옥 빛 그리움도 예전 같지

않다. 빠름과 풍요 속에 탐욕이 말 걸어 올 때면 느려서 볼 것이 많은 장항선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백설 공주를 꼬드긴 사과, 애플 컴퓨터의 로고가 된 앨런 튜링의 사과,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금단의 사과는 없는지 곱씹어 보면서.

/글 충청남도문인협회 이심훈

/그림 여행스케치회 홍기옥

제1회

충남 어르신

소방안전

미술대회

2021.11.1.(월)~11.30.(화)

주 관

충청남도

공모기간

2021.11.1.(월)~11.30.(화)

공모대상

충청남도 65세 이상 어르신(1957년 이전 출생)

공모주제

어르신 시각에서 바라보는 소방안전

그림 주제 예시

① 눈두렁·발두렁 소각금지를 알릴 수 있는 모습
② 우리집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모습, 활용 사례
③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 화재예방 안전수칙
④ 화재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⑤ 소방안전교육을 받는 모습, 어르신 스스로 소방시설 등 점검하는 모습
※ 예시 외에도 소방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가능

응모방법

가까운 소방서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
-응모서류 응모신청서
-그림크기 8절지(가로27.2cm×39.3cm) 또는 4절지(가로39.4cm×54.5cm)

수상자 발표

12. 22.(수) 09:00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통지

시 상

분야별	시 상
금성(1명)	충청남도지사 상장
은성(2명)	충청남도지사 상장
동성(3명)	충청남도지사 상장
장려(10명)	대전충남구조안전봉사회 이사장 상장
특별상*(2개 단계)	충청남도지사 상장

*특별상(단체상) : 참가자가 가장 많은 단체(복지기관, 경로당 등) 시상
※ 작품합수 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은 조정가능

문의처

충청남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041-635-5588)

충청남도

‘충남형 배달앱’ 소상공인·소비자 웃었다

A치킨집 수수료 257만원 절감
수수료 0%대 전국 최저 ‘파격’
도 “앱 참여 가맹점 확대 집중”

충남 계룡에 위치한 A치킨집은 충남형 배달앱을 통해 257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올렸다. 충남형 배달앱 덕분에 주문 수수료 11만 7000원, 카드 결제 수수료 3만 7000원만 지불한 것이다. A치킨집이 지난 3개월 간 충남형 배달앱으로 받은 주문 건수는 552건, 총 금액은 1300만 원에 달한다. 충남형 배달앱이 지역업체들의 주문·결제 수수료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충남형 배달앱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도입됐다. 충남형 배달앱은 주문 수수료 0.9%, 카드 결제 수수료 0.8%라는 전국 최저 수준 수수료로 관심을 모았다. 현재 충남형 배달앱을 운영 중인 시군은 계룡과 서산, 논산, 보령, 홍성, 당진으로, 12월 아산, 내년 상반기 나머지 시군도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지난 7월 5일 처음 가동을 시작한 계룡의 경우 지역 내 418개 허가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204개 업소(48.8%)가 충남형 배달앱에 가입했다. 이들 업체들이 충남형 배달앱을 활용한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1만 2725회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유명 배달앱 주문 건수의 26%에 달하는 수준이다. 충남형 배달앱을 통한 매출액은 3억 1990만 2000원으로, 가입 업체들은 총 6339만 5000원의 이익 증대 효과를 올렸다. 충남형 배달앱의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업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연내 충남형 배달앱 운영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비자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앱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맹점 확대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9



기업인대상 종합대상에 ‘지아이텍’ 충남도는 10월 28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28회 충남도 기업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종합대상은 아산 ‘지아이텍’이 차지했다. 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기업인대상은 지역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인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38

자동차 부품 기업 190억 원 수출 상담 성과

도, 수출 상담회·기술교류회
기업 15곳, 해외 바이어 25곳
수출 상담 규모 29건, 190억

충남도내 자동차 부품 관련 수출 상담 190억 원 상당 성과를 냈다. 도는 10월 28~29일 온양관광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1년 충남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으로 화상 수출 상담회 및 수혜기업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도내 기업 15개사와 해외 바이어 25개사가 참여했

으며, 이 자리에서 진행한 수출 상담 규모는 29건 총 190억 원에 이른다. 이어 기술교류회에서는 자동차 융합 부품 세계화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기업 소개 및 성과 발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이번 기술교류회에선 수출 초보 기업인 자동차용 오일쿨러 전문기업 A사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및 러시아 시장 확대 성과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자동차용 매연 저감장치 생산 기업 B사의 태국·베트남 등 해외 수출 신규 고객 확보 사례를 공유했다. 두 기업은 수출 상담회, 샘플 구입·

발송,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받아 수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157%, 144% 증가했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주요 사업은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외 바이어 발굴, 무역 실무 지원 등이며, 지금까지 100개 기업(682건) 지원에 총 23억 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2번의 수출 상담회 및 기업 지원을 통해 231억 9000만 원의 수출 성과를 이뤘으며, 도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업무협약 4건을 체결했다. /산업육성과 041-635-2924

위험요인 제거 안전한 일터 조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설명회 개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천안시·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설명회’를 열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공유하고 경영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준비 사항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조속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핵심 요소로 ▲경영자 리더십 ▲노동자 참여 ▲비상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소규모사업장 대상 안전 컨설팅 및 안전

보호 장비 지원,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지원사업을 시군 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2244

소문난샵 배달앱을 반드시 써야하는 이유

착한 배달앱 소문난샵

[월 매출 3,000만원 발생 시]

· 소문난샵 ·

광고비 없음
중개수수료 0.9%
외부결제수수료 0~0.8%

총 수수료 27만원

지역화폐 사용가능

· 민간배달앱 A ·

광고비 월정액 8만원
중개수수료 6.8%
외부결제수수료 3.3%

총 수수료 310만원

지역화폐 사용불가

· 민간배달앱 B ·

광고비 월정액 5만원
중개수수료 12.5%
외부결제수수료 3.3%

총 수수료 480만원

지역화폐 사용불가

1. 가맹점주는 월 최대 453만원 비용 절감

2. 소비자는 지역화폐 결제 시
구매액의 10% 절약과 추가 적립 0.1% 이상

소문난샵 사용하시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기업가가 포기 말아야할 건 ‘신뢰’

충청의 기업가 정신

사람 간 신뢰 쌓고 챙기면
거래 속도 올리고 성사까지

기업가에게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 자본, 기술, 학력, 인맥 등이 필요하다. 여러 필요한 자원 중에서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자원이 신뢰이다.

한국유리 창업자인 최태섭 회장의 일화는 여러 시사점을 준다. 최 회장은 6.25 전쟁 발발했을 때, 피난을 가기 전, 은행에 들러서 만기된 대출금을 갚았다. 당시 일반인들은 돈이 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떠나는 상황이었다. 그 때 은행원은 놀라면서 돈을 받았고,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최 회장에게 주었다. 6.25 전쟁 이후 최 회장은 원양어업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담보와 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 요청을 하였는데 거절당했다. 이 때 자신의 부채가 잘 정리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전에 받은 영수증을 보여 주었다. 이 행동이 상황을 180도 반전 시켰다. 영수증을 본 은행 직원은 놀라서 최 회장을 은행장 방으로 안내했다.

그 은행에서 최회장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로 이미 신화가 된 상태였다. 은행장은 소요 자금을 흔쾌히 대출해 주었다. 최회장은 대출 받은 사업자금과 은행권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펼쳐 나갔다.

기업가는 거래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비전을 만들고, 필요한 자원을 모으고, 고객 가치 창출 시스템을 만들고,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래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코오즈는 거래에는 비용이 수반된다고 한다. 협상을 위한 교섭비용, 갈등 분쟁 조정비용, 정보 탐색 비용 등이다. 거래 상대방을 믿고 맡길 수 있다면 거래의 속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기업가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신뢰자산을 포기하지 말아야, 기회가 또 온다.



이 종 원
호서대학교 교수

충남도청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충남 꿈비채 ‘최고 17대 1’ 청약 마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아산 배방 첫사업 600세대 공급

공정률 65% 2022년 7월 입주

59㎡ 평균 경쟁률 3.78대 1

충남도가 신혼부부를 위해 대단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충남꿈비채’의 청약이 마감됐다.

도와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충남꿈비채는 아산시 배방읍에 신혼부부 540호, 주거약자 60호 등 총 600호를 공급하며,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신혼부부 2.6대 1, 주거약자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면적 59㎡(25평형)는 최고 경쟁률 17대 1, 평균 경쟁률 3.78대 1을 기록했다.

록했다.

그동안 주변 지역 공급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의 평균 청약률(0.57대 1)보다 높은 편이다.

도는 더 저렴하고 더 넓은 환경을 제공해 높은 경쟁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한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3000만~5000만 원, 월임대료 9만~15만 원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은 36㎡(15평), 44㎡(20평), 59㎡(25평)로 공급되며, 신혼부부가 입주 후 첫 째 아이를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을 도가 부담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저출산 주거 정책이다.

이번에 청약 신청을 받은 아산시 배방읍 지역은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교통, 학교, 생활 인프라 등을 모두 갖췄다.

또 천안·아산KTX 역사와 직선거리로 4km 이내이고, 인근에 배방역이 있어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는 2022년 7월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꿈비채가 모든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축도시과 041-635-4647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영상 제작

도내 5800여 경로당에 보급

충남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노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등 관련 기관과 도내 경로당에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은 금융감독원과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9분 20초 분량으로 제작했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의 위험성

과 보이스피싱 의심시 대처법 등이다.

보급사업은 도내 5825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경로당 프로그램 교육시 해당 영상을 시청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도는 지난 6·7월 우체국금융개발원, 충남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190억 원에서 2020년 308억 원으로 62% 급증하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

/노인복지과 041-635-4221

충남 ‘119, 112 상황실’ 공동 대응한다

소방본부, 실종 치매노인 협력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공동 대응 등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충남 119와 112 상황실장 등은 10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하반기 정기 간담회를 열고, 긴급신고 접수 및 상황처리와 관련된 공동대응 실무 협의와 재난, 치안 등에 있어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논의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2018년 첫 만남을 시작으로 올해 7번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재광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소방본부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신속한 정보 공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진종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최근 치매노인 실종 등 신고접수 초기 단계에서 경찰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 늘고 있다”면서 “경찰청과의 공조와 유기적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41

충남도 제25회 노인의 날 행사

존경과 감사의 자리 마련

충남도는 10월 28일 홍성군 소재 충남도노인회관에서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경로효친 사

상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현재 도는 어르신들이터 확대,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치매 안심센터 및 멘토링제 도입 등 선도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도내 65세 이상 노인 수는 41만 6000여 명이다.

/노인복지과 041-635-4229

충남형 탄소중립정책 전국에 알렸다

도,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기후위기 대응 선도 정책 소개

충남도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충남형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3대 위기 극복’ 정책을 전국에 알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17개 시·도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례, 성

과 등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도는 행사 기간 동안 ‘충남에서 시작되는 녹색(Green) 바람’이라는 주제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충남형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정책,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3대 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 정책을 소개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석탄화력 조기폐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소개했다.

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기후비상 상황’을 선포하며, 지난해 정부의 탄소중립 구상을 견인했다.

또 지난해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 56개 기관이 참여한 탈석탄 금고를 추진, 현재 69개 기관이 참여하는 등 탈석탄·탄소중립 금고의 전국 확산에 앞장서 왔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정책으로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행복키움수당, 아이키움뜰, 3대 무상교육,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어르신 놀이터 설치, 충남도립대 무상교육 등을 알렸다.

/균형발전과 041-635-3664

도, 지역서점 49개소 첫 인증

인증제도로 동네서점 활력 모색

충남도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내 49개 서점을 ‘충청남도 지역서점’으로 인증했다.

도는 최근 ‘제3차 충청남도 지역서

점위원회’를 열고,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지역서점 인증 심의를 진행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이 20개소로 가장 많고, 아산 8개소, 당진 4개소, 서산·보령 3개소, 공주·논산·홍성·예산 2

개소, 금산·청양·태안 1개소 순이다.

도는 인증한 지역서점에 각종 홍보·지원을 비롯해 도내 공공기관 도서 구매 시 우선 구매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인증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지역서점을 추가 발굴·인증할 계획이다.

/문화정책과 041-635-3823

구급대원 폭행·활동 방해 시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한다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및 활동 방해에 대해 ‘무관용’ 엄정대응한다.

최근 충남소방본부는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1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2016년 7월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을 꾸리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긴급출동과 피의자 호송을 위한 전담 차량을 소방본부에 배치하고, 모든

소방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장비를 배치했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689

2021. 11.13(토) 09:30
대전해수욕장(한화론드 앞 경령주차장)/보령시 일대

보령 태안간 국도 77호 개통기념
2021보령해저터널
마라톤대회
www.brmarathon.co.kr

대회일정 : 2021. 11.13.(토)
접수기간 : 10.29.(금) 까지
참가부문 : HALF / 10km / 4.6km
참가비 : HALF~30,000원 / 10km~25,000원 / 4.6km~20,000원
접수방법 : 홈페이지 직접 신청

질병관리청의 대규모 스포츠대회 운영 지침에 따른 참가자 필수 이행 조건 (1번, 2번 의무 택일 사항)

- 대회 참가 전 3일 이내에 (검사 일자 허용일 11월 10일, 11일, 12일) 참가자 본인의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음성 확인 된 자.
- 백신접종 완료자(10월 29일 이전 2차 접종 완료자)
※ 백신접종 관련 및 PCR검사 등과 관련해 변경이나 하위일 경우 방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확인증영서는 2차중영서 참가신청시 필수로 입력 부탁드립니다.

접종확인증영서 제출이 어려우신 분은 확인 대행용 주민등록번호를 담당자(041-930-3334)에게 제시
기타 문의 사항은 사무국(02-785-0583)으로 전화하세요!

주최 BORYEONG 주관 보령시체육회 보령시육성연맹 후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천수만 양식 참조기 어가에 보급한다

도, 시험양식기술 매뉴얼 보급
고수온·질병에 강해 폐사 적어

충남도가 참조기 양식을 천수만에서 추진, 일반 어가에 보급한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5월부터 ‘천수만 해역 참조기 양식 현장 적용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시험양식은 전남 지역에서 4~5cm 크기에 1.5g 안팎인 참조기 치어 6만 마리를 구입해 지난 5월 7일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에 입식, 월별 및 수온별 성장과 28℃ 이상 고수온기 성장 및 생존률, 사료 효율성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와 동중국해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참조기는 회유성 온대 어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여름철 천수만 시험양식 참조기는 폐사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먹이 활동도 활발해 고수온에도 잘 적응하는 점을 확인했다.
참조기는 또 6개월이면 시중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수온기를 피해

양식을 진행할 수 있다.
짧은 양식 기간은 인건비나 운영비 등 경영 비용 절감 효과도 올릴 수 있다.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참조기는 현재 최고 23cm에 160g, 평균 20cm에 90g 안팎으로 성장, 목표치인 20cm·100g 이상에 근접하고 있어 시험양식은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험양식 결과를 토대로 천수만에 적합한 양식 기술 매뉴얼을 마련, 어가에 보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양식 참조기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비대면 요리 콘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94



보령 대천천 가을꽃 '만개' 충남 보령시 내 중심을 가로지르는 대천천 변에 만수국(마리골드), 백일홍, 국화 등 가을꽃이 만개해 시민에게 즐거리와 함께 진한 꽃향기를 전하고 있다. /보령시 제공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의지 모았다

제36회 충남도 여성대회
충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10월 25일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에서 ‘더 행복한 충남, 성평등을 향해!’라는 슬로건 아래 ‘제36회 충남도 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강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국가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로 진행했으며, 기념식에서는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 등 22명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다.
/여성가족정책관실 041-635-4983

폐탄광 인근 보령댐 수질 ‘적합’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충족
충남도는 보령시 성주면 폐탄광 인근 정화시설 및 하천에서 실시한 폐탄광 유출수와 하천수, 지하수의 정밀 수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하천수와 지하수 모두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탄광과 관련 있는 용해성 철 성분의 경우, 하천수 지점별로 보면 ▲정화시설 유입지점 1.82mg/L ▲정화시설

또 행사 슬로건을 활용한 피켓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강순자 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양성평등을 향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다지겠다”며 “위기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여성운동의 비전과 여성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481

서천 유부도에 소방대 생겼다

우리 섬 안전지킴이 발대식
소화기, 방화복 장비 보급
충남소방본부는 10월 27일 서천의 유일한 섬마을인 유부도 마을회관에서 ‘우리 섬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부도는 육지와 연결된 길이 없고 여객선도 운항하지 않아 육지를 오가는 수단이라고는 주민들의 어선이 유일하다.
앞으로 ‘우리 섬 안전지킴이’는 마을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출동해 인명대피와 초기 소화 업무를 하게 된다.
도 소방본부는 특수방화복과 같은 안전 장비는 물론 등짐펌프 등 화재진압 장비를 포함 총 8종 118점의 장비도 보급했다.
도 소방본부는 헬기119진화대 운영을 정착시키는 한편 금년 중에 소방대가 없는 주요 유인도서에 대형소화기를 보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지킴이 조직을 모두 발대할 계획이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25



전국 국·공립전문대학교 총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를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에서”

국·공립전문대 총장협의회
충청권 유치 협력 다짐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가 전국 국·공립전문대학교 총장협의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유치 지지 협약’을 맺었다.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10월 29일 경북도립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전국 국·공립전문대학교 총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총장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전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대한민국 충청권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23년 1월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충청권 4개 시도는 내년 1월 1차 관문인 예비 후보도시 선정에 힘을 쏟고 있다.
/체육진흥과 041-635-3861

충남 청년농업인 신진섭 씨 대상

농진청,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충남농업기술원은 정보화 농업인 토마토오빠 신진섭 대표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1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인 신 대표는 귀농 후 정보화 농업을 활용해 새로운 부농의 기회를 마련한 과정 등의 내용을 출품작에 담았다.
신 대표는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한 귀감이 되고, 롤모델로서 가치가 있다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 대표는 “앞으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정보화 농업이 다양하게 농업적으로 이용돼 경쟁력 강화에 활용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으로 정보화기술을 습득해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을 실천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092



충남 서해 KTX 시대 한걸음 바짝

국토부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서해 KTX시대 초석 될 것”

충남 홍성에서 서울까지 48분 만에 주
파할 수 있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KTX) 연결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신
규사업으로 반영된 서해선과 경부고속
선(KTX) 연결사업에 대한 사전타당
성조사가 연내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제4차 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
설사업 중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KTX) 연결선’을 비롯해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은 서해선
과 연결되는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
로 바뀌며 직결에서 환승 방식으로 변
경되고, 이동시간이 기존 57분에서 1
시간 40분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가 제
시한 대안 사업이다.

사업 구간은 경기 화성 향남에서 평
택 청북까지 7.1km이며, 사업비는 5491
억 원이다.

두 노선이 연결되면 서해선에도

KTX 열차가 운행하며 홍성에서 서울
까지 이동시간은 2시간에서 48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도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
되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에서 자료
제공 등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확보
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은 고속철도 소외지역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연결되는 서해축
고속철도망 시대를 열어가 핵심사업”
이라며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
역 추진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2835

충남도 태권도팀 이진영·이다솜 전국체전 금메달

전국장애인체전서 동반 금 획득

충남도는 도청 태권도팀이 지난 10월
22~23일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제41
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이진영(-67kg) 선
수와 이다솜(+67kg) 선수가 각각
겨루기 부문에 출전해 뛰어난 실력
을 발휘하며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다솜 선수는 품새 부문에도 출전
해 값진 동메달을 추가로 따냈다.
한편 2019년 창단한 도청 태권도팀



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합동팀
으로, 현원은 장애인 선수 2명과 비
장애인 선수 7명, 지도자 1명 등 총
10명이다.

/체육진흥과 041-635-3858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충남도가 세계적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수소산업 육성에 나선다. 도는 2일 ‘2021 제5회 충남 수
소에너지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도가 주최하고,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수소
융합얼라이언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련 산·학·연 기관이 후원했다.
/에너지과 041-635-3464

헬기 타고 항공구조대원 임무 수행

신계숙 교수 일일 공무원 체험

충남 당진 출신 요리연구가 신계숙 배
화여대 교수가 일일 119항공구조대원
으로 변신했다.

충남도는 지난 10월 15일 태안군 일
원에서 도정 홍보 콘텐츠 ‘왓시유’ 활
영 일환으로 신계숙 교수를 소방항공
대 119항공구조대원으로 임명했다.

신 교수는 1950년대 리어카소방차에

서부터 소방헬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부여받아 당차게 임무를 수행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일일 공무원 인
턴체험을 통해 주요 도정을 소개하는
‘왓시유’는 지난 4월 첫 회를 시작으
로 이번이 4회째다.

‘왓시유’는 도 유튜브 공식 채널
(www.youtube.com/c/topcnitv)을 통
해 볼 수 있다.

/예방안전과 041-635-5523



일일 명예 119항공구조대원 임명장을 받은 신계
숙 교수(오른쪽에서 2번째)

견주 앱 통해 10일간 7만 보 달성 어르신 건강식품 지급

충남도가 견주 앱을 이용해 목표를
달성한 어르신에게 건강식품을 지급
한다.

도는 건강식품기업 ‘대상 웰라이프’

로부터 총 30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
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건강식품은 견주 앱 가입자 중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할
‘어르신 건강 걷기 챌린지’를 통해 지
급할 계획이다.

어르신 건강 걷기 챌린지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 챌

린지 목표걸음 수는 10일간 7만 보
이다.

달성자 중 300명을 추첨해 1인당 1
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지원한다.

견주 앱은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
등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아 가입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 041-635-3857

김영환 서산의료원장 재임용

임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충남도는 지난 1일 서산의료원장에
현 김영환(65·의사·사진) 원장을 재
임용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용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다.

김 원장은 1989년부터 서천에서 병
원을 운영했으며, 2018년 11월 서산
의료원장에 임명돼 임기 동안 재활
복합병동 준공, 장례식장을 리모델링
해 쾌적한 진료 환경을 구축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



약계층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영유아 야간진
료센터, 주취자 응
급의료센터 등을 설

치·운영했다.

김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역의 미충족
의료를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책
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정책과 041-635-2645

치매노인 실종 최적 수색기법 찾는다

충남소방본부, 사례 정밀 분석

충남소방본부는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해 새로운 수색기법을 마
련한다.

도 소방본부는 기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최적
의 수색기법을 정립하기 위해 정밀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실종 치매노인 거주지부터 발견 장
소까지 거리, 계절 및 시간대, 수색
범위와 방법 등이 생존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실종 지역과 유형에 맞

는 장비·인력 규모 등을 찾고, 유관
기관 공조 및 즉시 투입 체계를 구축
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치매노인
실종 시 빠른 시간 내 찾을 수 있는
수색기법 및 체계를 정립토록 하겠
다”며 “이상징후가 있는 노인을 발견
하면 119 등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 보건소 치매안심센
터를 통해 실종 예방 배회 인식표와
지피에스(GPS) 위치 추적 장치 발급
및 배부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731

학생들 미용실력 뽐냈다

충남도립대 뷰티살롱데이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 뷰티코
디네이션학과가 재능 나눔으로 기술
숙련을 쌓는 ‘뷰티살롱데이’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뷰티코디네이션학과는 10월 26일
교내 헤어·피부실습실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다양한 뷰티 서비
스를 제공했다.

이날 사전 예약을 통해 접수한 재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커트와 모
발 클리닉, 염색, 두피케어, 피부관
리, 네일관리(아트), 인바디검사 등의
서비스를 진행했다.

/충남도립대 041-635-6736

충남 척수장애인의 날 기념식 차미경 회원 도지사상 수상

충남도는 10월 29일 ‘제11회 충남 척
수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영상물 상영, 대
회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으

며, 유공자 표창에서는 그동안 장애
인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차미
경 충남척수장애인협회 회원이 도지
사상을 받았다.

척수장애인의 날은 10월 1일의 숫
자 모양이 휠체어를 탄 척수장애인
을 형상화해 제정됐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2

성평등 언어 이렇게 사용하세요



성차별 단어	성평등 단어	제안 이유
부모	주보호자 양육자	육아를 부모만이 책임지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누가 하느냐에 따라 한부모, 부모, 조부모, 시설의 생활교사 등 다양하기 때문에 알림장이 나 부모안내서의 ‘부모’ 호칭도 ‘주보호자’, ‘양육자’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아빠다리	나비다리	“아빠만 할 수 있는 다리 모양?” 앉았을 때 다리모양을 본떠 ‘나비다리’로 바꿔 사용하면 어떨까요?

● 슬로건 :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출처 :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본인 소장 세한도 영인본·김상무 서첩 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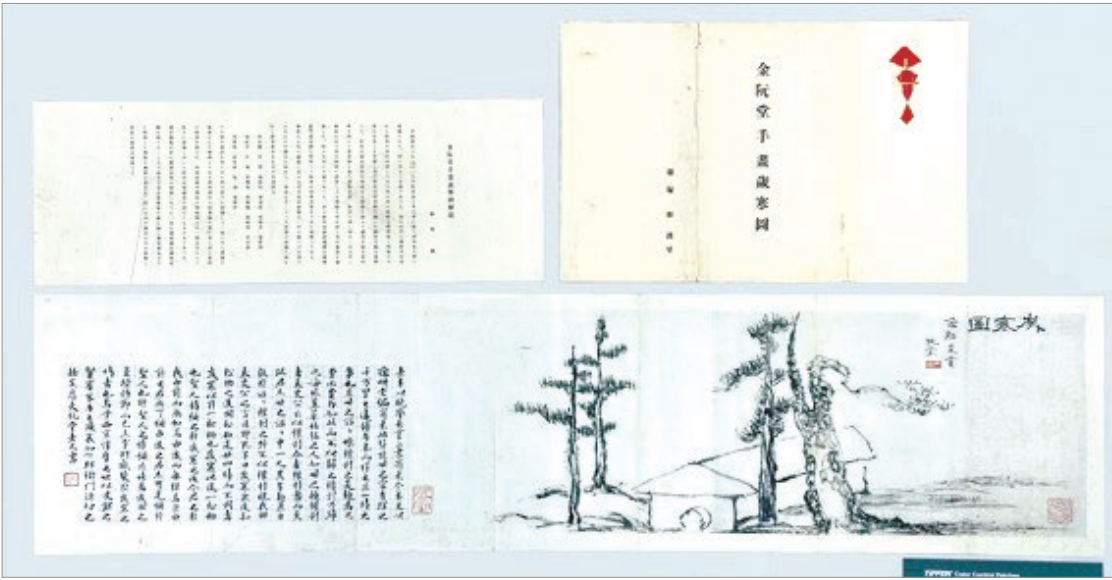
소장자 자필 해제 포함돼 가치 높아
예산군, 추사기념관 전시·연구 활용

[예산]예산군은 추사 김정희(1786~1856) 선생을 선양하고 전시·교육·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후지즈카 치카시 세한도 영인본과 김상무 서첩 등 2건을 구입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세한도의 다섯 번째 소장자였던 후지즈카 치카시(1879~1948)는 1939년 자신의 회갑을 기념해 추사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인 세한도 100부를 영인했으며, 이번 구매 유물은 그 중 한 점이다.

또한 해당 영인본에는 후지즈카 치카시의 자필 해제(解題)가 포함돼 있어 더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상무 서첩은 추사 선생이 제주도 유배시절에 양자로 들인 김상무(1819~1866)의 글을 모은 서첩으로 권돈인(1783~1859)의 화상찬과 추사의 필적 등을 모사한 작품과 백파선사(白坡禪師, 1767~1852)에 대한 제문(題文) 등이 실려 있다. 추사기념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사 김정희 및 관련 인물 유물을 구입하기 위



예산군이 구입한 후지즈카 치카시 세한도 영인본

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소장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군 제공

선생님 시인 이정록, 한성기문학상 수상 ‘영예’

시집 ‘아직 오지 않은 나에게’
청춘들의 일상과 감정선 포착



한성기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제 28회 한성기문학상 수상자로 이정록(58·사진) 시인을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수상 대상 시집은 ‘아직 오지 않은 나에게’(사계절, 2020)’이다.

위원회는 오민석 평론가의 글을 인용해 “이정록 시인의 시 세계를 관통하는 것이 있다면 시적 주체와 사물들 혹은 자연물들 사이의 친화적 관계의 형성”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인에게 있어

세상의 모든 물상은 그 자체로 존재함과 동시에 시인과 하나가 되는 ‘동고동락’의 독특한 시 세계를 구축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시의 내면에 흐르는 것은 단순한 구조와 깨끗한 심상 그리고 깊은 사고가 존재하는 한편 너스레와 군더더기가 없는 한성기 시인의 시 세계와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시집 ‘아직 오지 않은 나에게’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50대 후반에 접어든 시인이 청춘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다.

청춘들이 나누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 그들의 감정선을 포착해내고 이를 풀어가는 모습은 그의 시가 완숙의 경지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대전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한 이정록 시인은 김수영문학상, 김달진문학상 등을 수상한 이 시대의 대표적 시인이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4시 대전 태화장에서 열린다.

/도정신문팀

충청인의 詩香

어떻게 알았을까

작은 화분 거실에 두고
생각나면 찢끔 물 부어주고
하루에 한 두 차례 창문 열어
바람 쐬어준 게 고작인데
밖은 노랗 자동차 소음 뿐
새소리 한 번 들을 수도 없었는데
종일 갇혀 있는 고 녀석
설악에 단풍이 내려오고 있다는
어제 밤 친구 전화 엿들었나
어찌 가을이 온 줄 알고
오늘 아침 이파리 두 잎을 빨갛게 물들였나
고깃 참 신통하네.



조 유 정 시인
·천안문협, 충남문협, 한국문협 회원



청춘예찬 ‘우보 민태원 학술제’ 성료

서산 출생 언론인이자 문인
민 작가 청년정신·예술혼 기려



[서산]우보 민태원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충남도와 서산시가 후원한 ‘청춘예찬 작가’ 우보 민태원(사진) 학술제가 지난달 23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민태원 선생은 1894년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에서 태어나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이자 문인으로 유명하다.

우보 민태원 학술세미나에서는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언론인과 문인의 짧은 생애 민태원’을 발표한 데 이어 김중희 문화평론가 ‘민태원 연구의 선 자리와 갈 길’, 신익선 문학평론가 ‘민태원의 청춘예찬에 나타난 청년정신 고찰’, 최수웅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이야기 전달자의 가치와 작가의 정체성’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김가연 기념사업회장은 “지나해 이맘때 민태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발족된 우보 민태원 기념사업회를 향한 많은 분들의 무언의 신뢰가 있었기에 이번 학술제 개최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춘예찬의 고향 서산에서 우보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지역문화 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희/콘티비충남방송

‘무령왕의 해’ 맞아 ‘갯위강국 백제의 길’ 발간

‘공주가 좋다’ 시리즈 3번째 책
중흥 일군 무령왕의 업적 담겨

[공주]충남 공주의 역사, 문화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공주가 좋다’ 도서 시리즈의 세 번째 도서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공주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세계유산도시이자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주가 좋다’ 도서 시리즈의 세 번째 도서

인 ‘갯위강국 백제의 길 : 백제를 다시 일으킨 무령왕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2021년 무령왕의 해를 기념해 발간된 이번 도서는 백제의 중흥 군주인 무령왕의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총 5장, 16항목으로 구성됐다.

무령왕의 즉위 과정과 다시 강한 백제를 만든 무령왕의 업적을 담고 있으며 국판 219쪽으로 제작됐다.

가격은 1만 5000원으로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는 도서 발간을 기념해 지난달 옛 공주읍사무소에서 이한상 대전대 교수, 서정석 공주대 교수가 진행한 북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백제의 중흥 군주 무령왕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고 많은 시민들이 무령왕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2월, 근대 공간 속에서 공주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엮은 ‘공주의 재탄생, 근대도시 공주 : 20세기 전반기의 공주 분투 이야기’를 발간할 예정이다.

/공주시 제공

궁중 한식 위상 높인 충남의 대장금

예향 충남, 그 맥을 찾아서(28)
천안 궁중 요리연구가 황혜성

조선왕실 전통 조리법 체계적 정리한
국내 최초 요리책 ‘이조궁정요리통고’
중요무형문화재 ‘궁중 음식’ 2대 기능보유자

황혜성, 이름이 가볍지 않다. 사라질 뻔한 조선왕실의 요리법을 복원하고 알려내 우리 음식문화의 위상을 가능케 한 명인. 한국 ‘음식’에 최초로 ‘문화’라는 지위를 부여한 요리연구가, 이것이 그를 향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1920년 천안 성환읍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을 보냈다. 천안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공주공립고등여학교에 진학했지만, 학교를 다 마치지 않은 1935년, 16살 나이로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지쿠시고등여학교와 교토여자전문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1940년에 귀국, 대동공립고등여학교에서 가사를 가르쳤다.

그때 그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다. 조선왕조 마지막 주방 상궁이었던 한희순 명인을 만난 것이다. 그는 그에게서 궁중 음식 조리법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기록으로 정리했다. 학문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1942년 숙명여전 교수가 되면서 낙선재를 찾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다시 한 상궁을 만나 조리법을 전수받는다. 함께 기억과 구술로

충남도경

더 행복한 충남
도민을 위한 도정을 잇다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안내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eong

‘오징어 게임’의 위력

내포칼럼



심 미 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엔총회 연설대에 오른 BTS
아카데미 4관왕 쾌거 기생충
전 세계가 시청한 오징어게임

사회 문제를 꿰뚫는 통찰력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상상력이
전 지구촌을 열광케 만들어

우리 문화가 가지는 경쟁력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유럽을 동경해 왔다. 지금도 C사의 핸드백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디자인이 더 뛰어나고 실용적이고 거기가 값까지 저렴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외국을 다녀와야 하고 외국 제품을 하나쯤은 지녀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최근 이런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 그 시작은 방탄소년단이다. 한국의 남성 아이돌 그룹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는가 하면 ‘아미’로 지칭되는 팬클럽을 전 세계에 갖고 있다.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았던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계속되고, 올해는 제76차 유엔총회에서 ‘SDG모멘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한국의 아이돌그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도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각본상은 101년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받은 아카데미 수상이고, 최우수 작품상도 비영획권 영화로는 최초라고 한다. 영화 기생충은 짧은 웃음 속에 긴 쓸쓸한 여운을 남기는 영화다.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에 대해 “한국 인이라야 100%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고 말했지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은 “매우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영화”라고 평가했다. 이런 영화평은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을 관람한 관객들이

한결같이 자기 나라의 상황과 똑같다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너무나 한국적인 상황을 그린 영화지만 기생충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거의 모든 나라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엄청난 화제를 낳고 있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OTT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리메이크 드라마의 흥행이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오징어 게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한국적이다. 빗에 쫓기는 수백 명이 거액의 상금을 타기 위해 서바이벌 게임에 뛰어들다는 이야기다. 물론 게임에서 지면 죽기 때문에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서바이벌 게임들은 한국의 아이들이 어릴 적에 즐겨 했던 게임들이다. 무궁화 게임, 달고나 게임 등이 그렇다. 게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규칙이 단순하고 유치한데, 세계인들은 이 한국식 게임에 열광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 기생충,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 대해 내세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계인들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한다. 사회 문제를 꼬집어내는 통찰력, 스토리를 구성하는 한국인들의 일상이 어찌면 외국인들의 눈에는 새롭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지도 모르겠다.

삶의 양식이 문화라면, 우리의 문화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만의 문화적 특징을 찾아보자. 거기에 우리 문화의 경쟁력이 담겨있는지도 모른다.

이정록 시인의 서랍

강

양수를 여섯 번이나 담았던
당신의 아랫배는
생명의 공간, 옆으로 누우면
내가 제일 고생 많았다며
방바닥에 누버려진다
긴장을 놓아버린 아름다운 아랫배
누가 숨소리 싱싱한 저 방앗간을
똥배라 비웃을 수 있겠는가
허벅지와 아랫배의 터진 살은
마른 들녘을 적셔 나가는 은빛 강

깊고 아늑한 중심으로 도도히 흘러드는
눈부신 강줄기에 달려들고파
나 문득 취수장의 물처럼 소용돌이친다
뒤룩뒤룩한 내 뱃살을
인품인 양 어루만지는 생명의 무진장이여
방바닥도 당신의 아랫배에 볼 비비며
찼 찼 끊는다

『제비꽃 여인숙』 민음사

대학병원 뇌신경센터에서 일하는 육근상 시인한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모시고 대전에 와라.” 한 시간 반 가량 국도를 달려 어머니가 계신 고향 집에 들렀다. 아무리 불라도 인기척이 없다. 마을 창고를 예돌아 밭에 가니 어머니님이 고추를 따고 계신다. “병원 가야 한대니까요. 뭘 고추라?” 어머니가 샤워를 마치고 꽃무늬 팬티한 장만 걸치고 나온다. 어머니의 배꼽과 사타구니에 소용돌이치고 흐른 마른강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검사를 마친 육근상 시인이 나를 불렀다. “어머니는 깨끗하다. 차매도 중풍도 없겠다. 이제 너 좀 보자.” “난, 엉망일 거예요.” “내일 뭐 하나? 약속 다 미루고 다시 와서 머릿속 사진 좀 찍어야겠다. 머릿속 강물이 막히면

실개천이 바닥을 드러내지. 운이 나쁘면 오늘 저녁 술 먹다가 일 치를 수도 있어.” 돌아보니 그렇그런한 눈으로 어머니가 진찰실 문 앞에 서 계신다. 어머니가 저리도 작으셨나? “네 몸 이상하니까 늙은 어미 앞장세워서 온 거 아냐?” 다음날 나는 머릿속 작은 실개천을 보았다. 좌우 도랑물의 넓이와 실개천이 확연히 달랐다. 저녁 늦게 육근상 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제 너랑 술 못 마시겠다. 너한테 술 주지 말라고 어머니가 신신당부하더라.” “내 머릿속 보려고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했지?” “불행 중 다행으로 알아. 이제 너랑 나랑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의 강이 생겼어.”

/이정록 시인

천안과 아산의 더비를 기대하며

생생현장리포트



최 영 민
천안신문 기자

최근 천안에 들어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소식이 전해지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이 조망기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 간의 협약 내용에 포함된 프로축구팀 창단도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천안시는 이사회를 통해 구단의 법인명을 기존 ‘천안시축구단’에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클럽라이센싱 규정에 맞춘 규정으로 정관도 개정했다.

이미 K3리그에 2년째 참가하고 있는 천안시축구단은 내후년 꿈에 그리던 프로무대를 밟게 된다. 그리고 천안의 축구팬들은 인근 아산을 연고로 두고 있는 ‘충남아산프로축구단’과의 지역 라이벌전도 기대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더비(Derby)’는 동일지역 또는 비슷한 성격을 갖는 구단들의 경기를 말한다. 축구종가 잉글랜드에서는 이미 축구팬들이 자주 들어본 ‘북런던 더비(토트넘-아스널)’가 있고, 스페인의 ‘엘 클라시코(바르셀로나-레알 마드리드)’ 등 세계인들이 모두 알만한 더비 경기들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농상전’으

로 불리는 강릉중앙고(옛 강릉농고)와 강릉제일고(옛 강릉상고)의 축구경기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연고전’ 혹은 ‘고연전’이 많은 스포츠 팬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라이벌전이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동해안 더비(포항-울산), 제철가 더비(전남-포항), 슈퍼매치(수원-서울) 등의 ‘히트상품’이 축구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기존의 더비 경기들과 비교했을 때 열정적인 측면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을 경기가 바로 천안과 아산의 경기가 될 수 있다. 1999년 옛 천안일화가 지역을 떠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로축구팀을 갖지 못했던 천안의 축구팬들은 누구보다 천안시민만을 위한 프로축구단 창단을 기다려왔다.

더구나 천안과 아산은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에 양 도시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다.

또한 KTX 천안아산역 개설 당시 ‘명칭논쟁’에서도 보였듯 서로의 자존심 또한 대단한 도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천안과 아산의 더비 경기는 우리나라 프로축구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라이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양 도시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두 구단의 만남이 벌써 설레게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천안 건립은 천안은 물론 인근 아산의 축구발전에도 큰 호재다. 어느 도시들보다도 축구발전에 있어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한 천안과 아산의 ‘더비’를 기대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도 살아나길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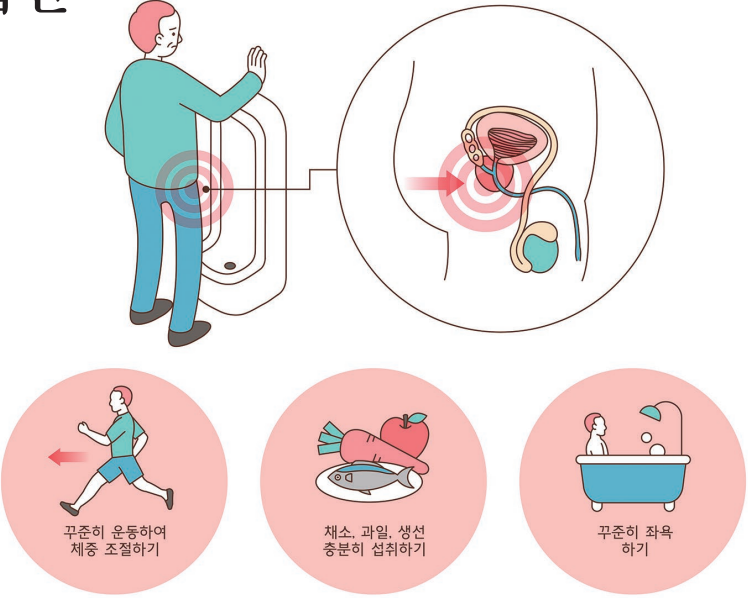
남자의 자존심, 전립선

내 몸이 들려주는 건강 이야기

약 20g에 불과한 밤물 모양의 제 이름은 전립선입니다. 평소에는 관심 밖이다가 중노년기 소변발이 약해지거나 잔뇨가 생기면 저를 떠올리곤 하시지요.

제가 하는 일은 정액 성분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만드는 것인데요. 고환에서 이동해 온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사정된 정액이 굳지 않도록 유지시켜 정자가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립선액은 알칼리성이므로 산성 환경의 질에서 정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액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는 전립선액에서 나는 것입니다.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면 좋으련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성호르몬에 오랜 세월 노출되면 제가 점점 똥똥해지는데 이걸 전립선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방광에 고여있던 소변은 제 중심을 지나 요도로 배설이 되므로 비대해진 제가 요도를 누르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똬를 들어



야 나오고 줄기가 가늘어지다가 중간에 끊기는 증상, 개운치 않고 또 보고 싶은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급만성 전립선염도 골치아픈 병인데요, 염증이라고 하지만 95% 이상이 비세균성이어서 불온한 성생활 등 세균감염으로 몰아가시면 안되고 항생제나 알파차단제 같은 전문 약을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래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평소엔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시고 적절한 성생활과 규칙적 운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류 특히

토마토, 마늘, 녹차 등의 섭취를 늘리고, 육류와 지방 및 칼로리는 제한해 주시고요. 광고로 접하는 쏘팔메토 성분은 논란이 있지만,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활에 불편을 느끼실 정도라면 주치의와 상담 후 약을 처방받으시면 비교적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레이저나 수술적 방법 등을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정유석 단국대학교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신동엽 시인 가옥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시인 신동엽이 살았던 집의 터. 국가등록문화재 제339호이며, 이 자리에 있던 가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결혼한 뒤에도 살았다.

“깍뎡기는 가라” 신동엽의 외침이 백마강에 울렸다

충남기행-부여 신동엽문학관

정갈한 시인의 방과 유품 보존돼

문학적 고뇌 엿보이는 육필 원고

소박함 추구한 시인의 숨결 간직해

백마강 건너 문화 창작 공간 자운길

삼국시대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 땅을 밟았다.

바람결이 시원스레 머릿결을 쓰다듬고 하늘이 높고 맑은 만추의 가을날. 발걸음이 향한 곳은 신동엽문학관이었다. 국어 교과서에 실려 이미 유명해졌고 수능모의고사에도 자주 출제된 시 ‘깍뎡기는 가라’의 주인인 바로 신동엽 시인의 문학관이다.

문학관 앞에 서니 생가를 보수한 가옥 터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시인의 방은 특별함보다 정갈하고 소박한 문인의 방 그대로였다. 문학관 내

부에 전시한 시인의 유품은 보존상태가 좋았다. 이게 다 부인 인병선 씨의 전적인 기부 덕분이었다고 한다. 몇 번이나 고쳐 쓴 신동엽의 육필 원고를 보니 좋은 시를 쓰기 위한 시인의 고뇌가 선하게 다가왔다.

신동엽은 1959년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이후 ‘깍뎡기는 가라’ ‘금강’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으로 민족문제와 역사 의식을 일깨우는 시를 발표하며 민중시가 정착하는



신동엽 시인의 친필 시 ‘곡(哭)’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시인이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위로할 때 신동엽 시인의 시를 낭송하는 게 어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만 39세에 요절한 그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중정 같은 내부 욕상을 보니 문학관 건축양식이 예사롭지 않다. 특이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건물을 누가 지었나 했더니 승효상 건축가였다. 승효상은 2019년 오스트리아 학술예술 1급 심사훈장과 2020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유

명한 건축가로, 공주 전통불교문화원도 그의 작품이다.

방향을 틀어 규암면 부여자운길로 향했다. 이곳은 번성한 옛날은 가고 빈집 빈 상가만 남은 백마강변 아름다운 마을 규암리에 작가들의 창작공간을 활성화한 ‘로컬 콘텐츠타운’이다.

오래전 마을의 작은 요정(料亭)이었다는 카페 ‘수월옥’에서 차를 마셨다.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거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보수한 흔적이 단단했고, 젊은 층의 인스타그램 명소로 나를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책방 세간’은 옛날 담뱃가게를 리모델링해 책방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역시 인스타그램 명소였다. 강 쪽은 123사비 전망대와 아트큐브, 창작센터 등이 들어설 ‘공예마을 규암’을 조성 중이다.

거리 곳곳에 새 단장에 열심인 가게들이 보였다. 작가들이 모여 한뼘 한뼘 정성을 들인 부여자운길이 완성되면 부여는 백제 유산 말고도 젊은 층의 눈길을 사로잡는 새로운 볼거리가 풍성해지겠다.

/노준희 여행작가



바로 옆 풀씨 갤러리에서 바라본 신동엽문학관 전경

소들섬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 희망이 시작됐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모전서

고압 송전철탑 건설 막기 위한

우강초 동아리 제안 최종 선정

[당진]소들섬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희망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우강면 신촌리 495번지에 위치한 소들섬은 겨울철 철새도래지로 해마다 가창오리, 왜가리, 큰기러기 등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낸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345kV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소들섬에 고압 송전철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강초 환경동아리 환경의사회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제19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당진 소들섬을 응모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네티즌 평가와 서류심사, 현장 심사를 바탕으로 당진 소들섬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관계자는 “송전탑과 송전로 건설로 시민의 건강과 야생동식물 서식에 위



우강초등학교 환경동아리 환경의사회 학생들이 지난 16일 소들섬을 지키기 위한 자전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

협을 주고 있다”며 “우강초등학교 동아리 환경의사회가 송전탑으로부터 소들섬과 철새들을 보호하려는 활동에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며 당진 소들섬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강초등학교 김희숙 교장은 “모두 한마음으로 시민공모전을 준비했고, 선정돼 기분이 좋다. 함께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강면이 그냥 고향이 아니고, 우리들의 땅이고 지켜야 할 소중한 소들섬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나영/당진신문

‘한국 천주교의 위대한 첫발’ 라파엘호 복원

국내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1845년 조선 귀국 과정에서 탔던 배 재현

[논산]1845년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성(聖)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국내에 첫발을 내딛던 당시 승선한 라파엘호가 논산시 강경읍에 재현됐다.

논산시는 지난달 23일 강경포구에서 라파엘호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라파엘호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로 사제 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가 포교 활동을 위해 1845년 강경에 상륙할 당시 승선하고 있던 배로, 시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지난 해부터 라파엘호 복원을 계획하여 올해 3월 본격적인 원선 제작에 돌입했다.

총 길이 9.74m, 너비 4.22m, 높이 1.94m로 전통 한식으로 복원된 라파엘호는 강경산 옥녀봉에 위치해 아름다운 강경의 비경과 어우러져 더욱 매력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첫 미사를 집



지난달 23일 강경포구 라파엘호 공원에서 열린 ‘라파엘호’ 준공식

전했던 강경 구순옥 가옥 등을 중심으로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예배를 올린 ‘ㄱ자 형 교회’를 복원하여 강경이 가진 종교적 상징성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경은 김대건 신부님이 상하이에서 조선인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고, 귀국 후 첫 발을 내디딘 곳으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며 “특히, 라파엘호는 김대건 신부님의 일행이 견딘 험난한 조선 입국 과정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시 제공

동작인식 가로등 설치하자 어르신 밤길이 환해졌다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함께하는 충남의 100가지 변화(2)

농촌지역 야간 교통환경 개선
노인사고방지 프로젝트 의제팀

동작 감지해 길 비추는 조명 설치
어르신 보행사고·작물 피해 줄여
주민과의 협동으로 '변화의 바람'



마을 어르신들이 온새미로팀과 함께 경관 개선을 위한 바람개비 모형을 제작하고 있다.

농촌의 밤은 도시의 밤보다 더 어둡다. 마을을 둘러싼 산자락 너머로 해가 떨어지면 밤길은 칠흑으로 빠져들고, 서로 멀찌감치 떨어진 가로등은 주변만 겨우 비춘다. 이마저도 발작물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꺼버리면 전원풍경엔 빛 한 점 남지 않는다.

어르신들은 더 곤혹스럽다. 희미한

밤눈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포장도로와 콘크리트길은 마치 웬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징검다리를 연상케 한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샛길에 차량이라도 나타나면 마음을 졸이며 길을 지나야 한다.

여느 농촌과 다를 바 없던 천안 성환읍 대흥1리 마을에 최근 한 줄기 빛이 내리고 있다. 의제팀 온새미로(안

제환 대표·한승연·김단희)와 주민들이 함께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 LED 등을 설치하면서부터다.

온새미로팀은 그동안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농촌 도로 환경 개선에 해답을 제시했다. 팀원들은 장소가 협소해 가로등 추가 설치가 어려운 마을에 태양광 충전식 소형 LED 등을 적용했다.



온새미로팀이 설치한 동작감지 LED 등

마을 진입로부터 내부, 외곽도로까지 설치된 조명은 전부 동작 인식 LED로, 캄캄한 환경에서도 사람의 동작을 인식해 불을 밝힌다. 사람이 지나가면 저절로 등이 꺼지기 때문에 발작물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해결했다.

안제환 온새미로 의제팀 대표는 “동작 감지 조명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명이 길어서 유지관리가 쉽다”며 “수

리나 교체도 간단해 어르신들이 직접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온새미로팀과 대흥1리 마을 주민들은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의제 진행 전 단계에서 머리를 맞댔다. 주민들의 의견과 온새미로의 조사를 바탕으로 설치 지점을 결정했으며, 경관개선을 위한 바람개비 모형 제작엔 주민들도 직접 참여했다. 주민들은 자신의 손끝을 거쳐 밝아진 마을을 바라보면서 함박웃음을 짓는다.

안 대표는 “지역 문제의 해결책은 지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우리가 근처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건의하고, 해결을 위해 나설 때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주재현 scottju@korea.kr

천안시청 좌식배구단, 전국장애인체전 7연패 달성

제41회 체전서 8강부터 완승
명실상부 전국 최강팀 입증

[천안]천안시청 좌식배구단이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머쥐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7연패를 달성했다.

천안시청 좌식배구단은 지난달 25일 치러진 인천과의 결승전에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천안시청 좌식배구단은 8강전부터 한 세트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결승전

까지 연승을 이어갔다. 8강전 광주와 3대0, 4강전 경기도와 3대0, 결승 인천광역시와 3대0으로 승리를 거둬 2014년부터 7년 연속 우승을 달성, 명실상부한 전국 최강팀임을 증명했다.

이종기 직장운동경기부 단장은 “7연패라는 큰 성과로 천안시의 위상을 높인 천안시청 좌식배구단 선수와 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좌식배구단이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우승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7연패를 달성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초대 태극장사’ 임태혁, 공주알밤한우 알린다 **[공주]**초대 태극장사이자 현역 최다 우승을 보유하고 있는 임태혁(사진 왼쪽) 씨름선수가 공주시 공주알밤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임태혁 선수는 “공주 출신으로서 역사·관광도시인 공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시 제공

아산중 하키, 소년체전 3연패 역사를 썼다

제48·49·50회 3연속 금메달
각종 전국대회 52회 휩쓸어

[아산]충남 아산중학교 하키부의 전국 소년체전 3연패 위업이 길이 남게 됐다.

아산중은 지난달 20일 하키부의 전국소년체전 3연패를 거둔 지도자와 선수들의 명단을 새겨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아산중 하키부는 지난 8월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 앞선 48·49회에 이어 중등부 하키 부문 사상 최초로 소년체전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한 아산중 하키부가 지난달 20일 열린 기념비 제막식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산중 하키부는 충남이 하키의 불모지였던 1975년, 창단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해마다 각종 대회의 상위권에 입상하면서 자타공인 하키 명문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지난 전국 소년체전을 포함 총 9회

에 걸쳐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각종 전국대회 우승도 52회에 달한다.

아산중 졸업생들은 아산고등학교를 거쳐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함으로써 재학생과 동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이혜진/온양신문

백산농장 손세희 대표, 제20대 대한한돈협회장 당선

한돈인 권익 보호·2세 경영 지원
국가 단위의 ASF 방역 대응 약속

[홍성]백산농장 손세희(사진) 대표가 제20대 대한한돈협회장에 당선됐다.

손 대표는 지난달 1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한한돈협회 ‘제48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212명 중 206명(97.2%)의 표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권익 보호 ▲2세 경영 지원 ▲협회-자조금 혁신과 역량 강화 ▲국민 공감, 사랑받는 축산인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공약을 내세웠다.

11월 1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한

로 선출됐다.

손 신임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적 방역 대응 ▲한돈인

그는 “한돈산업이 놓여있는 절박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한돈농가들의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타축종 단체와도 협력해 한돈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신장시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손 신임회장은 홍성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손 신임 회장은 대한한돈협회 홍성지부장과 중앙회 이사를 역임했다. 한관우/홍주신문



국화꽃 입은 김대건 신부 당진의 국화축제장에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국화로 수놓은 김대건 신부.



청양 100만송이 국화 청양 구룡3리의 '100만송이 국화축제'장에 형형색색의 국화가 만개했다.



태안 앞바다에 핀 국화 '꽃과 바다'라는 주제로 열린 '태안국화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깍두기가 공주에서 유래했다고요?

공주서 '깍두기 축제' 열려

임금님 수라상 올린 궁중음식

[공주] '공주깍두기 축제'가 지난 주말 충남 공주시 반죽동 당간지주 공원에서 지난 30일 열렸다.

공주시 중학동에 따르면 '2021 공주 깍두기 축제'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12가지 반찬 가운데 하나인 궁중음식

이자 흔히 먹는 깍두기가 공주에서 유래된 것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음악 공연에 이어 공주 깍두기의 유래를 상황극으로 마련해 재미와 이해를 도왔다.

특히 싱싱한 무와 고춧가루 등 공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공주깍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담긴 '공주깍두기'는 중학동



공주깍두기 축제장에서 깍두기를 담고 있는 참가자들

통장협의회원들이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공주시 제공



당진 시내에 날아든 백로 **[당진]**당진2동 소나무숲에서 수십 마리의 백로가 당진시보 건소 맞은편 소나무숲에서 발견됐다. 이광석 한국조류보호 협회 당진시지회장은 "합덕·석문·고대 등에서 백로 서식지가 발견된다"며 "또 다른 서식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나/당진시대

남성은 '지훈', 여성은 '수연'으로 개명 많았다

여성 개명이 남성 두 배

[당진]당진에서 개명한 이름 가운데 남성 이름은 지훈, 여성은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당진에서 여성이 330명, 남성이 170명이 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계서비스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10월 5일까지 여성 249명, 남성 95명이 개명했다.

지난해 가장 많았던 개명은 남자는 '지훈', '수연'이었으며, 2019년에는 남성은 '민재·우진·은우', 여성은 '수연'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2018년에는 남성은 '재원', 여성은 '민정·서윤·서현·채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년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량 개명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여성 330명이 개명했고 남성은 170건이었다.

2019년에는 여성이 305명, 남성이 177명, 2018년에는 여성 331명, 남성 173명으로 조사됐다. 한수미/당진시대

교황 밥상에 올려진 당진 꺼먹지

■ 새로배우는 충남學

해수 육수 만난 꺼먹지

변비 예방 섬유소 함유

꺼먹지 비빔밥 특허청 등록



충남은 해수와 육수가 마주치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각종 식자재가 풍부하다. 당진 지역은 무를 많이 재배한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무를 이용한 음식을 많이 만든다. 꺼먹지는 육지의 무와 바다의 소금이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서해 바다의 햇빛과 바람이 만든 천일염으로 늦가을 무청에 고추씨를 넣어 절여 놓으면 서너달 뒤 파랑던 무청이 거무스레해진다. 꺼먹게 색이 변한 담금(漬)이라고 하여 꺼먹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지(漬)는 담금이라는 의미인데 짜게 담가 유산발효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붙이는 이름이다. 짜지 않게 담가 발효가 일어나는 것은 김치라고 한다. 짠지는 짜게 담근 담금(漬)이라는 의미이므로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오래 보존할 수 있다.

꺼먹지는 채소를 보관하기 힘들던 시절에 채소를 보관하는 방법이기도 하였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였던 보릿고개에 허기를 달래던 음식이다.

봄에 꺼먹지를 차가운 샘물에 담가 소금기를 빼고 음식을 만드는 데 무청을 소금에 담가 오래 놓아두면 천일염에 들어 있는 여러 무기 성분, 무청에 들어 있는 엽록소를 비롯한 성분 등이 산소

와 반응을 하여 검은색 물질들을 생성한다. 검은색 물질들은 폐놀 등 항산화물질이 많다.

무청의 주성분은 섬유소이다. 섬유소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한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환경오염물질을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을 증진시킨다. 꺼먹지의 섬유소는 씹는 식감을 살리고 양념이 풍미와 조화를 이룬다.

꺼먹지를 넣은 비빔밥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었을 만큼 유명한 당진의 향토음식이다. 이 꺼먹지를 이용한 음식은 여러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서 꺼먹지 보쌈, 꺼먹지 볶음 등 많은 것들이 있다.

이 음식은 건강식으로 세계의 어디에 내 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어서 2014년에 먼 유럽에서 교황청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방한하였을 때 그의 밥상에 꺼먹지 비빔밥을 내놓았다. 화려하지 않지만 토속적인 전통음식이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내놓은 것이었다.

/구경완 호서대학교 산학융합대학원장



금산군, 천년 은행나무 목신제

[금산]금산군은 1962년 천연기념물(제84호)로 지정된 요광리 은행나무 목신제를 열었다. 요광리 은행나무는 수령 10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산군 제공

차의 아버지 '한재 이목' 역사인물 선정

차 전문서적 '다부' 편찬

[공주]공주시는 11월의 역사인물로 차(茶)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재 이목' 선생(1471~1498)을 선정했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목 선생은 대쪽 같은 기개와 강직한 성품을 지닌 절의

의 선비이자 우리나라에 전하는 가장 오래된 차 관련 전문서적 '다부(茶賦)'를 지은 인물이다.

이목 선생은 1492년(성종 23)에는 정사를 농단하는 영의정 윤필상을 간귀로 지목하고 극형에 처할 것을 상소했는데 이 일로 성종의 노여움을 사 공

주로 유배됐다.

또한 1495년 연산군 시절에는 승하한 성종을 위한 수륙재(水陸齋) 개최를 비판하다가 연산군의 노여움을 사 다시 공주로 유배를 왔다. 1498년 무오사화 때 모함을 당해 사형당했다.

하지만 중종반정 직후인 1506년에 복권됐으며, 1552년 이조참판, 1707년(숙종 33)에는 이조판서에 추증되며 그 명예를 회복했다. /공주시 제공

금산고속도로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금산군, 미세먼지 차단숲 75ha 조성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대전-통영 고속도 등 조성

[금산] 금산군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성한다.
금산군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대전-통영 고속도로, 추부농공단지 등 3곳 총 7.5ha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 37억5000만 원, 도비 7억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5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내년 상반기 설계를 시행하고



금산의 한 산업단지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숲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통영고속도로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추부농공단지 2022년 연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차단숲은 미세먼지를 차단·흡착해

확산을 막아주고 열섬을 완화한다.
군은 올해까지 총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금성농공단지 내 1.5ha, 인삼약초농공단지 내에 1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금산군 제공

홍성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축제 열린다

2년 만에 비대면으로 개최
유튜브 등 영상 홍보 전개

[홍성] 홍성군이 이달 말까지 ‘제26회 광천토굴새우젓 및 광천김 대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광천에서는 매년 가을 김장철을 앞두고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광천 토굴새우젓과 광천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진행기로 했다.
군은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축제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은 육젓·오젓·추젓 등 새우젓 3종과 식탁김·전장김 등 광천김 2종으로 구성된 맛보기 꾸러미를 40여 개 주요 기관과 광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배부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홍성 광천 토굴새우젓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성군 제공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교육센터 짓는다

해양레저 저변 확대 도모

[태안] 태안군 만리포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가 내년 8월 착공된다.
‘만리포니아’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만리포해수욕장은 이국적인 풍경과 넓은 해변으로 바닥이 완만하고 파도가 적당해 서핑 관광지로 변모했다.

군은 내년 8월 사업비 157억 원(도비 50%, 군비 50%)을 들여 착공할 계획이다.
군은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해양레저 활동으로 인한 수난사고 예방과 해양레저관광의 저변 확대를 꾀하는 등 관광객 및 주민이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만리포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조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태안군 제공

농협하나로마트, 공주 ‘옥광밥’ 판매

[공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에서 소비자들 공주 ‘옥광밥’을 구매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공주 ‘옥광밥’을 선보였다. 공주 ‘옥광밥’은 일반 품종과 다르게 조금 작지만 껍질이 얇고 구슬처럼 윤기가 난다. 알이 딱 차 있고, 통통하며 당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공주시 제공



도시민 농촌체험, 부여 서울농장 내달 준공

서울시가 70% 부담해
실습농장 등 체험장 설치

[부여] 부여군과 서울시가 도농 상생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여 서울농장이 오는 12월 준공된다.
부여군에 따르면 장암면 정암리에 15억 원을 들여 9244㎡ 규모로 조성하는 이 농장은 농업교육동과 전원주택

형 숙소동, 체험 실습농장, 학습농장, 주말농장 등으로 꾸며진다.
이 농장은 준공 검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여군과 서울시는 이 농장에 앞으로 5년간 매년 10억 원(서울시 70%·부여군 30%)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 농장을 군민과



부여 서울농장 조감도

도시민의 교류 소통은 물론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맞춤형 영농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여군 제공

천안시축구단 K2리그 진출 추진

2023년 진출 목표

공식 스폰서 모집 중

[천안]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함께 천안시축구단의 2023년 프로리그(K2리그) 진출을 추진하며 공식 파트너(스폰서)를 모집한다.
천안시는 2019년 대한축구협회와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입장면 가산리 일대에 45만여㎡ 규모로 기반시설과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공식 파트너 업체는 후원 부문과 규모에 따라 경기를 활용한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프리미엄 파트너’는 구단 명칭 사용권을 갖게 되며, ‘스페셜파트너’는 명칭 사용권은 없으나 TV 중계와 언론보도 등 주요 홍보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천안종합운동장의 경기장 명칭 사용권도 판매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1-521-2186, 5762)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 제공



수도권 전철 아산 탕정역 개통

수도권 전철 아산 탕정역이 개통됐다. 탕정역 개통으로 KTX천안아산역과 아산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탕정역 개통으로 대한민국 성장 역량의 중심부로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수도권전철 아산 탕정역이 개통됐다. 탕정역 개통으로 KTX천안아산역과 아산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탕정역 개통으로 대한민국 성장 역량의 중심부로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동학사~세종시 직통버스 운행

직통 연결로 환승 불편 해소

[공주] 공주시는 계룡산 동학사와 세종시외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직통버스(360번)를 다음 달 6일부터 운행한다.
버스는 토·일요일과 공휴일 등에만 하루 10회 운행한다. 첫 차 출발 시각은 오전 7시 40분, 막차는 오후 6시이다.

노선은 동학사 주차장~학봉삼거리~박정자~공암리~송곡리~두만교차로~세종시외버스터미널이다.
세종시민이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계룡산을 가려면 공주 도심이나 대전시 유성 등을 경유해야 했다.
이번 직통노선 개통으로 환승 대기 시간이 줄고 승하차 불편 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 제공



보령 달빛·별빛·조명 ‘달빛등대로’ 조성

보령 달빛·별빛·조명 ‘달빛등대로’ 조성사업은 대천항의 꽃게조형물에서 방파제까지 가로등과 경관조명, 별빛공원 조성(5100㎡) 등을 조성하게 된다.

[보령]보령시는 야간조명이 어우러진 ‘달빛등대로’를 보령해저터널 개통 시기에 맞춰 선보인다. ‘달빛등대로 조성사업’은 대천항의 꽃게조형물에서 방파제까지 가로등과 경관조명, 별빛공원 조성(5100㎡) 등을 조성하게 된다.
/보령시 제공

폐교된 초등학교 체험 휴양마을로 변신

공주 중장초 농촌체험

카페 등 휴양마을로 탈바꿈

[공주] 학생 수 감소로 2012년 문을 닫은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초등학교가 농촌체험 휴양시설로 탈바꿈한다.
공주시는 2018년부터 총 49억7천만 원을 들여 추진한 중장초등학교 활용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이 다음 달 말 완공된다고 20일 밝혔다.
휴양마을은 체험실(2개)·사무실·카

페·객실(6개) 등을 갖춘 본관(791㎡), 다목적 강당·식당·주방 등이 있는 별관(375㎡), 캠퍼장·놀이터(61.9㎡) 등으로 꾸며진다.
이곳에서는 매년 10월 말 국화 등 가을꽃을 주제로 한 마을축제가 열리고 꽃차·밤고추장 만들기과 텃밭가꾸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야영장이 운영된다.
지역특산물인 꽃차를 판매하는 카페도 운영된다.
/공주시 제공

“위드코로나 시대 걸맞는 자치분권 필요”

도의회-거버넌스센터 공동

‘거버넌스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

지방정치 권력구조 개혁 목소리

도의회와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1일 충남 예산 스피러스 리움에서 거버넌스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방정부 권력구조의 개혁과 지방의회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송창석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 이정일 충남시민재단 상임이사, 이공휘 충남도의원, 김경희 경기도의원,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노수 교수는 지방 권력구조의 개혁을 위해 ▲공천 민주화를 포함한 지방정치의 권력구조 개혁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제 도입 ▲지방의



도의회와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1일 예산 스피러스 리움에서 거버넌스와 자치분권 혁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회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형용 이사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거버넌스 지방정치 혁신과 더불어 지방의회와 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모색하고 정립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선 의장은 “위드코로나 시대 거

버넌스와 자치분권 이슈는 과거와는 다른 사회적 담론을 포용하여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제도와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버넌스와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으로, 주민이 주인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중심점이 돼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선 도의회 의장 도서관간 배송비 경감 촉구

전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서

도의회가 제시한 건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울산 머큐어앰배서더 호텔에서 2021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도의회가 제안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김명선 의장(당진2)은 전국 도서·산간 지역의 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배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 절차가 더뎠다. 배송 취약지역의 주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김명선 의장

도의회는 또 금강하구 수질과 생태계 복원, 금란도 개발, 해상경계 문제 등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금강하구 해

수유통’이 20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했지만, 해당 안건은 유보됐다. 도의회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금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을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국가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해수유통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김명선(왼쪽 다섯번째) 의장은 지난달 25일 유창기(오른쪽 여섯번째)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회장에게 연탄 3만 장을 전달했다.

적십자 ‘사랑의 연탄나눔’ 3만장 지원

“적십자·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나길”

도의회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충남 태안군 아일랜드 리움에서 열린 의정 워크숍에서 2021년 적십자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을 위해 유창기 대한적십

자사 충남지사 회장에게 연탄 3만 장을 전달했다.

도의회가 지원한 연탄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정 등 지역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또한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 원도 별도 전달해 이재민·저소득층 구호 활동과 사회봉사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부여 용강중 학생 40여 명

2분발언·조례안 처리 체험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부여 용강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사진>

이날 학생들은 의장선거를 통해 의장 선출 과정을 체험하고, ‘쉬는 시간을 늘리자’, ‘깨끗한 교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2분 발언을 진

행했다.

또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고, 장·단점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인 뒤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 신동훈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문화와 정책 결정 과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토론회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예방’ 팔 걷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의제

“정보 약자 위한 정책 마련할 것”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충청소방학교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정근 의원(천안9) 요청으로 열린 토론회는 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지정근 의원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안정엽 경위가 발제를 맡았으며,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윤치원 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충남정보보호센터 노병규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정엽 경위는 “통화나 문자가 오는 바로 그 시점부터 상황을 인지하

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에 대한 홍보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치원 팀장은 “최근 3년간 충남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82억 원에 이른다”며 충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범죄예방관 제도를 소개했다.

지정근 의원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로,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정보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단체 ‘탄소중립’ 앞장서야

탄소중립 봉사자 역할 의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절실”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산문화원 공연장에서 ‘탄소중립 실현 자원봉사자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옥수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



김옥수 의원

서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이상신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과 박준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

았고, 이경용 충남새마을회장을 비롯한 박성순 충남자원봉사센터장, 강순자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윤주문 서산시자원봉사센터장이 토론자

로 나섰다.

이날 이상신 소장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미흡 ▲지자체의 낮은 온실가스 관리 권한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한계 등을 지적하며, 공동체 중심의 자치 제도를 통한 탄소중립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조금 불편해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역사·예술 융합된 공주 대학로 만든다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 의제

“문화 접목해 방문객 늘려야”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공주시 기적의도서관에서 ‘공주 대학로 특화거리 조성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훈 의원(공주2) 요청으로 열린 토론회는 공주대학교 주변 대학로의 공간적 변화와 지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최훈 의원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 이석현 교수가 ‘도시경쟁력과 특화가로디자인 충남’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원, 박신 충남도 건축도시과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석현 교수는 “공존의 가치 등을

토대로 도시공간 경쟁력을 키우고, 개성적인 가로 형식으로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신 팀장은 공주대 주변 대학로의 역사·문화·예술이 융합된 특화거리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공주의 문화와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도의원 주요 의정활동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높인다



이공휘 의원

도의회가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위탁사무 시행 시 총괄재산관리관,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거리 출·퇴근, 도시지역 신규·전입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지역의 관사보유 근거를 마련하고, 비품 지원을 등을 통해 관사 환경개선과 교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근거 마련



김기서 의원

도의회가 고령화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이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어촌인력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지정·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개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는 현재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인력 수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54개소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9개소가 확대돼 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농어촌인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력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도내 농어업 고용보험,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도 에너지·관광 분야에 ‘그린뉴딜’ 입힌다



김연 의원

도의회 ‘균형발전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녹색전환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달 29일 4차 회의를 갖고 환경과 수소경제·관광개발 분야의 그린뉴딜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연 의원(천안7)과 정병기 의원(천안3), 이공휘 의원(천안4)과 전문가, 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연미 이태농원 대표는 “생태를 주제로 한 에코빌리지 조성 등 지역만의 독특한 콘텐츠 제공로 천안만의 매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용주 선문대 교수는 “앞으로 호스피탈리티산업이 지방경제와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그 생태계 조성, 호스피탈리티산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 학업·양육 상담 돕는다



정병기 의원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로 이뤄진 가정을 대상으로 학업·출산·양육·주거·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청소년부모 가운데서도 ‘한부모’ 가정에만 지원이 가능해, 청소년부모 대다수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청소년부모들은 학업중단, 원가족 단절 및 부재, 경제적·정서적 고통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충남은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기본소득으로 농어촌 살려야



김영권 의원

도의회가 도내 소멸 우려지역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기본소득의 정책 실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달 21일 ‘충청남도 농촌지역 소득보장제도 적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에서는 기본소득 쟁점을 정리하고, 농촌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제 적용 가능성과 효과분석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소득보장 제도 발전 방안과 소멸 고위험 행정리 마을 3123개소 중 20여 곳을 선정해 2년간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제시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은 “충남형 농촌 재생의 비전은 농촌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도입해 농촌 거주와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 화폐를 통해 지역 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유희시설 활성화 방안 도출



김명숙 의원

도의회는 지난 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촌공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모임’ 회의를 가졌다.

지난 3월 발족식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농촌공간정책의 최근 동향과 충남도의 대응 방향 ▲주민자치회 연계성을 중심으로 읍·면 소재지 공공시설 실태와 활성화 과제 등 도내 읍·면 소재지의 관련 정책 실태를 공유하고 농촌 공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해왔다.

‘충남 농촌유희시설 활용실태 및 민관협력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농산어촌개발 유희시설의 실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우수사례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실태조사 결과물과 활성화 정책 방향을 충남도에 제안해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김영수 의원

도의회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5년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료 개발 보급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연구·발표 학술행사와 학교 공연·전시·상영 행사 등을 개최하는 한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육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채로운 예술 소양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창의·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적정수준 보육료 지원 마련해야



한영신 의원

도의회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보육료지원시스템 및 적정성에 관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료의 현실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해왔다.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은 충남 보육료 지원 시스템 분석을 통해 국·공립과 민간 기관의 보육료 차등 문제를 제기하며, 공평한 보육료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은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보육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충남 보육료 지원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논의된 내용을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해 올해 안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여가활동으로 도민 삶의 질 높인다



이영우 의원

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과 여가의 조화(워라벨)를 위해 도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사항과 ▲여가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여가활성화 사업 추진 ▲여가교육 실시 ▲민간단체 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휴가 사용 실태 등 도내 여가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가시설 개선·확충, ▲여가 상품 및 서비스 산업 육성과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의 여가 지원을 담았다.

이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기, 워라벨을 지키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반드시 이뤄야

의원시론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내포신도시는 2012년 충남도청을 비롯한 주요 행정기관 이전과 지난해 220만 도민의 간결한 염원으로 혁신

도시 지정을 이뤄내며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했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환황해권시대 거점지역으로서 경부 축을 중심으로 기능이 집적된 불균형적 지역구조에서 벗어나 충남 내륙, 북부, 서해안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의 상생발전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지역공약

143개를 발표했다.

그중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없어 ‘무늬만 혁신도시’, ‘허울뿐인 환황해권 중심도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포신도시의 환황해권 중심

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계획 및 방안을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각종 혁신도시 지원 정책에서 우리 도가 소외되는 등 지역적 차별로 충남 홀대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지난해여부터 ‘내포

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필자는 흥성 출신 도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이행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촉구 활동을 이어 갈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공공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충청 농업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 된 것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흥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해 1996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명 '가래떡 데이'라고도 불립니다. 가래떡 1자 4개처럼 허리 꼿꼿하게 펴시고 쉬며 즐기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 지원을 받던 나라가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국가 식량안보는 물론 기아로부터 세계의 소중한 생명을 구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농업인 덕분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땅을 경작하며 식량주권과 생명농업을 실천해 오신 충청 농업인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충남지역 시군에서 수확한 쌀을 소개합니다.

이찬선/도정신문팀장

충남지역 쌀을 소개합니다.

광역브랜드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공주시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금산군



사진은 예산농악보존회가 지난달 벼를 수확하는 과정을 재현한 것입니다. <예산농악보존회 제공>